

적벽 개방·문화전당 벨트... '화순 관광' 뜬다

“조선 10경 보자” 인파 몰려
향교·사찰 문화유산 산업화
정율성 초등학교 등 정비
중국 관광객 유치도 박차

천하제일경(天下第一景) 화순 적벽의 공개로 화순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또 화순에는 중국인이 사랑하는 음악가 정율성 선생이 다니던 학교 등이 있어 대중국 관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벨트를 화순까지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의 인근지역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효과를 누르겠다는 것이다.

◇주목받는 적벽의 아름다움=지난달 23일 일박이대 개방된 화순 이서적벽(전남도 기념물 60호)은 백악산에서 발원한 동북천이 할아리 형상의 웅성산을 휘돌아 나오면서 만든 절경이다.

지난 1973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물민에 한해 설, 추석, 한식 날에만 별초·성묘를 허가했지만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와 화순군은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 하나로 이서적벽을 개방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개방 후 매주 수·토·일요일 각 3회 적벽의 아름다움을 공개하고 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첫 개방 이후 5000여명의 관광객이 적벽을 다녀갔다.

유명 관광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단시간에 ‘구름 관광객’이 몰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효과 노린다=화순군이 광주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



최근 공개된 화순 적벽에 5000여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화순 관광'이 새롭게 뜨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화순군 이서면 적벽 일대에서 열린 적벽 공개 축하 공연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벽을 개방한 것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화순군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을 화순으로 불러들이는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은 적벽과 화순향교를 비롯해 능주·동북 향교 등 향교가 3곳이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또 정율성 선생이 다니던 능주초등학교, 주자묘 등 중국 관련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 6대 사찰(운주사, 쌍봉사, 만연사,

개천사, 유마사, 규봉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김삿갓 종명지 등 문화유산이 다양하다.

화순군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해 이들 문화유산을 산업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하니움적벽실에서 ‘정율성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한·중 합동 음악’을 열었다.

또 광주시 동·남구와도 상생을 꾀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9월 광주시 동·남구와 의료관광 및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화순 전남대병원과 정율성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낸 능주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광주시 일선 구청과 손을 잡은 것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중국 관광객의 육구가 음식·의료로 확대되면서 광주·전남이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중국인을 겨냥한 의료관광 전략을 모색해 화순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특색 튀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눈길

장성군이 민선 6기 들어 인구유입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이색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25일 “귀농·귀촌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이들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talk (톡)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장성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돕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장성군은 또 귀농·귀촌 실시간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처럼 전화와 방문상담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에 귀농·귀촌 코너를 개설해 각종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현장교육 체계도 별도의 귀농실습교육농장을 지정해 희망자들이 수시로 사과와 블루베리, 감 등 품목별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문의 061-390-8431.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임권택 감독 영화 ‘화장’ 고향 장성서 상영

장성 출신 임권택 영화감독의 영화 ‘화장’이 내년 고향에서 상영된다.

장성군은 24일 “지난 18일 임권택시네 마테크에서 임 감독이 유두석 군수와 만나 내년 2~3월께 장성에서 영화 ‘화장’ 시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감독의 102번째 작품인 영화 ‘화장’은 국민배우 안성기씨가 주연을 맡았

고, 압에 걸린 아내가 죽음과 가까워질 수록 다른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된 한 남자의 서늘한 갈망을 그렸다.

그동안 각종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큰 호평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전남생물의약연구원 공동

서울서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 심포지엄

화순군은 25일 “전남생물의약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1일 터케이 서울호텔에서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과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은 국내 여러 백신 전문가를 초청,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백신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백신관련 연구기관(질병관리본부 정혜숙 박사, 국제백신연구소 송만기 박사), 기업(제백신 진현탁 박사, 셀트리온 김

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외 백신연구개발 동향과 DNA백신, 세포배양백신, 결합백신, 산업동물용백신 및 새로운 면역보조제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은 생물 의약품(백신,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과 함께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시료를 대량 생산하는 CMO로서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화순바이오메디칼클러스터 내 리더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물의약연구원은 국내 바이오 의약분야 5개 공공 의료생산업 시설 중 유일하게 백신 시료 생산을 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죽녹원 ‘지붕없는 주제관’... 체험·전시·교육구역 구성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대나무 숲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세부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등 개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담양군은 25일 “최근 전시 및 운영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명인과의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행계획에 따르면 박람회장은 크게 주제체험구역과 주제전시구역, 그리고 제

험교육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미 국내 유명 관광지가 된 죽녹원은 이번 박람회의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재탄생한다. 죽녹원 내에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이 설치되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죽녹원 한옥쉼터와 연결된 선비의 길과 운수대통길에 마련되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흥미롭게 살펴볼 만하다.

운수대통길은 한 장소를 계절별로 촬영

하여 액자식 구조로 촬영 이미지를 연출해 관람객들이 박람회 중 죽녹원의 사계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표현된다.

선비의 길은 철학자의 길과 함께 촉각, 후각, 청각 체험을 통해 심신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산책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변에는힐링데크, 대나무평상과 대나무해먹 등의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또 죽녹원에서 대나무문화체험관까지 가는 길은 미디어 큐브와 카피나사드 및 국내외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설치되는 등 ‘영감의 길’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연출된

다. 영감의 길을 따라 설치되는 미디어큐브의 내부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나무의 가치를 소개하는 조형물 또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대나무 미디어 아트관 1층은 이이남 작가의 ‘새벽죽도’와 호남의 신진 작가 작품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현대의 눈으로 재탄생된 대숲을 선보인다.

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전시, 운영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약회사 자금관리를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기림유) • 시공사 | 건해중합건설(주) • 신약사 | 아시아신약(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 2015년 2월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집인프라 • 신약사 | 아시아신약(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